왼쪽부터 서현진, 에릭, 전혜빈.

에릭 "미래 보는 능력 있다면, 아내 얼굴 보고파"

tvN 로맨틱 드라마 '또 오해영' 에릭·서현진·전혜빈 호흡

내달 2일 첫 방영…빠른 전개·통통튀는 로맨스로 시청률 사냥

tvN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또 오해영'의 주연 에릭(본명 문정혁·37)은 "숨 쉴 틈 없이 진행되는 드라마"라고 밝혔다.

에릭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 "굵직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릭은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자, '그냥 오해영'(서현진)·'예쁜 오해영'(전혜빈 분)과 기묘한 운명으로 엮이는 음향감독 박도경을 연기한다.

에릭은 자신의 배역에 대해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에게 조금씩 빠져드는 남자이고, 자기도 모르게 잘 해주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에릭의 TV 드라마 출연은 2014년 10월 종영한 KBS 2TV '연애의 발견' 이후 약 2년 만이다. 에릭은 당시 정유미와 함께 복잡미묘한 연애의 민얼굴을 자연스럽게 보여줘 호평받았다. 이번에도 서현진(31), 전혜빈(33)과 어떤 로맨스 연기를 펼칠지 기대된다.

에릭은 '예쁜 오해영'과 '못난 오해영'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일단 예쁜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다가, "꼭 예쁘다는 게 얼굴이 예쁜 것을 뜻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수습했다.

드라마는 박도경에게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까지 선물했다. 초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은 에릭은 "'또 오해영' 시청률보다 (미래) 와이프 얼굴이 궁금하다"는 답변으로 좌중을 웃겼다.

에릭은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라는 '불새'(MBC TV 드라마·2004) 시절 대사가 화두에 오르자 "아직 없지만, 막판 시청률이 불안하다 싶으면 급조라도 해서 '머리가 타고 있어요'라도 말하겠다"고 재치있게 답하기도 했다.

서현진은 자신이 맡은 오해영에 대해 "사랑도,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적당히 심심하게 사는 여자"라면서 "우리 드라마나 제 캐릭터에는 적당하다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생활 연기를 소화한 데 대해 "망가지는 연기보다 예쁜 척하는 연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면서 "그래도 무반주로 춤을 추는 장면을 찍을 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혜빈은 "예쁜 캐릭터라는 설정이 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임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역할이라서 애착을 갖고 연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해영'은 5월 2일 밤 11시에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고수·진세연 '옥중화', 오늘 스페셜 방송

이병훈 PD와 고수, 진세연 조합은 어떤 모습일까.

MBC는 오는 30일 첫 방송을 앞둔 특별기획 드라마 '옥중화'의 스페셜편을 27일 밤 9시 30분에 방송한다고 25일 밝혔다.

30분 분량 '옥중화 특별한 이야기'에는 3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사극의 거장' 이병훈 감독과 진세연, 고수, 정준호, 박주미 등 주연 배우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겼다.

특히 조선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인 '전옥서'와 당시 변호사제도인 '외지부' 등 이번에 최초로 소개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다루는 드라마 옥중화도 조명한다.

MBC는 "당시 세계 어디에도 다루지 않았던 우리 고유의 제도를 다루는 만큼 한류 드라마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며 "사극의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 이병훈 감독의 힘을 분석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장혁 이번엔 의사로 변신

KBS '뷰티풀 마인드' 출연…6월 20일 첫 방영

배우 장혁(40)이 KBS 2TV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에서 의사로 분한다.

26일 홍보사 와이트리컴퍼니에 따르면 장혁은 오는 6월20일 첫 방송되는 '뷰티풀 마인드'에서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 역할을 맡았다.

극중 이영오는 빠른 손과 뛰어난 통찰력을 지녔지만 자기 자신을 '우월한' 의사로 생각하는 위험성을 지닌 인물. 드라마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환자들의 기묘한 죽음에 얽히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는다.

드라마 관계자는 "탄탄한 내공으로 다져진 장혁만의 카리스마와 감정 연기가 이영오 캐릭터와 만나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는 당초 '뷰티풀 마인드'를 현재 방송 중인 '동네변호사 조들호' 후속으로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캐스팅 등 초반 작업이 늦어지면서 6월6일부터 2주간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를 편성해 시간을 벌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충격실화극 싸인 스페셜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재) 50 안녕 우리말(재)	00 다큐멘터리 3일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유산순례 30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명견만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재) 〈good-bye, 미스터 블랙〉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	10 뉴스특급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55 TV 블로그 꼼지락
2	30 직언직설	00 다큐 공감 5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55 튼튼생활체조(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괘도난마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슬론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 특별한 이야기	
10		00 왕인 벚꽃 축제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황금나침반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10 세계의 눈 〈절지동물 대백과 - 공동체〉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출동! 슈퍼윙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내 아이의 진로찾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칠리 새우 덮밥과 청경채 볶음〉
11:00 세계테마기행(재) 〈셰익스피어 문화기행 3부 동화의 나라에서 햄릿을 만나다〉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잭과 팡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윙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대변항 봄 멸치〉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언덕, 청장고원 동부를 가다 3부 대륙의 젖줄을 품다〉
21:30 한국기행 〈동해남부선〉
21:50 EBS 다큐 프라임 〈나를 찾아라-3부 시간과 불안〉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고교 명랑교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음 3월 21일 己卯)

子 48년생 폐단을 제거한 후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60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72년생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실속은 있는 편이다. 84년생 좀 더 세분화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84

丑 49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61년생 일시적인 현상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73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5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행운의 숫자 : 81, 79

寅 50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고려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74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86년생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7, 05

卯 51년생 균형이 깨진다면 공든 탑도 무너지겠다. 63년생 전례를 답습한다면 소모적이다. 75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87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9, 69

辰 40년생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낳는다. 52년생 복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 64년생 관심을 표하라. 76년생 호사다마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88년생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행운의 숫자 : 19, 07

巳 41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다. 53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65년생 시급하다. 77년생 전혀 상관없으니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다. 89년생 합리적인 실행이 길성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41, 31

午 42년생 부실하다면 확실히 보완해야만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54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66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기겠다. 78년생 후회할 일은 아예 만들지 않음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48, 51

未 43년생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 55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67년생 복합적 요소로 인해서 우회하는 길이 오히려 빠르겠다. 79년생 조절은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53

申 44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56년생 마음에만 담아두고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두루 살펴보아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80년생 길한 징조가 아주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 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4, 11

酉 45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57년생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69년생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균열이 염려되는 바이니 투명하면서도 매끄럽게 처리하라. 81년생 주인공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4, 45

戌 46년생 짐작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58년생 궁극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70년생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82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4, 13

亥 47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9년생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다. 71년생 촌시가 황금과 같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83년생 일관되게 진행하지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숫자 : 26,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